

류현진의 환상적인 기록 행진...사이영상급 질주

5월 4경기 3승 무패 방어율 0.28...리그 다승 공동 1위 · 방어율 전체 1위



9경기 6승 1패 평균자책점 1.52.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에서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류현진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7이닝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 역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최근 3경기 연속 선발승을 거둔 류현진은 시즌 6승째(1패)를 수확해 내셔널리그 다승부문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올해 원정경기에서

첫 승리를 신고했다. 류현진은 5월에만 4경기에 등판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28의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회 실점한 이후 더 이상 실점이 없다. 31이닝 연속 무실점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다. 이 부분 최고 기록 보유자는 다저스에서 뛰었던 오렐 허시아저다. 허시아저는 59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1.52로 끌어내렸다.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2위 잭 데이비스(밀워키 브루어스·1.54)에게 근소하게 앞섰다. 메이저리그를 통틀어도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선수는 5명밖에 없다. WHIP(이닝당 주자 허용률) 역시 0.74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이며, 삼진 59개-볼넷 4개 비율도 경이롭다. 피안타율도 0.190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5월 히달의 선수를 노려볼만하다. 나아가 커리어하이 시즌 사이영상에 도전할 수도 있다.

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류현진이 이끄는 선발진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류현진은 최근 3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회 실점한 이후 더 이상 실점이 없다. 31이닝 연속 무실점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다. 이 부분 최고 기록 보유자는 다저스에서 뛰었던 오렐 허시아저다. 허시아저는 59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1.52로 끌어내렸다.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2위 잭 데이비스(밀워키 브루어스·1.54)에게 근소하게 앞섰다. 메이저리그를 통틀어도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선수는 5명밖에 없다. WHIP(이닝당 주자 허용률) 역시 0.74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이며, 삼진 59개-볼넷 4개 비율도 경이롭다. 피안타율도 0.190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5월 히달의 선수를 노려볼만하다. 나아가 커리어하이 시즌 사이영상에 도전할 수도 있다.

“류현진, 거장의 면모 과시했다” 현지 언론도 극찬

메이저리그(MLB) 최정상급 투수로 올라선 류현진(32·LA 다저스)을 향해 현지 언론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장'이라는 칭호까지 붙였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류현진이 또다시 거장의 면모를 선보였다"며 극찬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다저스타 다음을 떠나 승리를 따낸 것은 올 시즌 처음"이라며 "빅리그 개인 최장인 31이닝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MLB닷컴은 "신시내티는 1~5회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고, 세 번

은 주자가 득점권까지 갔다. 류현진은 6회까지 삼자범퇴 이닝이 없었다"며 "하지만 마지막 8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밭타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일간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류현진이 더 이상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홈보다 원정에서 높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류현진이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투구를 이어갔다"고 원정 첫 승을 부각시켰다. 31이닝 연속 무실점이 다저스 역대 10위 기록이라고 소개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최근 맹

활약한 다저스 선발진 가운데서도 류현진이 최고라고 칭찬했다. 지역 최대 언론인 'LA 타임스'는 "류현진의 탈삼진과 볼넷 비율은 59:4로 충격적"이라며 "24번의 득점권 상황에서 단 하나의 안타도 맞지 않았다. 전체 피안타율은 0.19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 네이션은 "베테랑 좌완 투수 류현진은 제구의 거장이 됐다. 강하고 두터운 다저스 선발진에서 최고로 올라섰다"며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장인 31이닝 연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갔고, 평균자책점 부문 1위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FA 김종규, 역대 최고 12억7900만원 DB행

김종규, 4억2000만원 현대모비스 전태풍은 7500만원에 SK에 동지

프로농구 자유계약(FA) 최대어 김종규(28)가 역대 최초로 10억원대 몸값을 돌파하며 원주 DB에 새롭게 터를 잡게 됐다. KBL은 20일 FA 타 구단 영입의 향서 제출 결과를 통해 DB가 단독으로 김종규 영입의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종규에 관심을 보였던 전주 KCC가 영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DB는 경쟁 없이 김종규를 영입하게 됐다. 보수총액은 12억7900만원(연봉 10억2320만원·인센티브 2억558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프로농구 출범 후 최초 몸값 10억원 돌파로 이정현(KCC)이 2017년 FA를 통해 받았던 종전 최고 보수총액 9억2000만원(연봉 8억2800만원, 인센티브 92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낯선고~경희대를 졸업한 김종규는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창원 LG에 입단했다. 207cm 높이에 운동능력을 겸비해 리그를 대표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아 동기들보다 FA가 빨라졌다. 지난 시즌에는 51경기에

서 평균 11.8점 7.4리바운드 1.3블록슛을 기록했다. 원 소속구단 창원 LG와 협상 과정에서 타 구단 사전접촉 의혹이 불거져 구설에 올랐지만 KBL 재정위원회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LG는 12억원에 결별서를 썼다. DB 외에 KCC도 김종규 영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순간에 방향을 틀어 영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DB는 허용, 윤호영이 전채한테다 2019~2020시즌에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 두경만이 군에서 복귀할 예정이다. 서울 삼성에서 베테랑 가드 김태술도 이적할 예정으로 구성이 탄탄하다.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까지 합류하면서 우승후보로 부상했다. 대신 KCC는 최현민 한정원 정창영을 영입했다. 최현민은 보수총액 4억원(연봉 3억2000만원·인센티브 8000만원)에 5년 계약을 맺었다. 한정원과 정창영은 나란히 1억2000만원이다. 뒷이야기가 무성하게 인천 전자랜드를 빠져나온 김상규는 보수총액 4억2000만원(연봉 3억3600만원·인센티브 8400만원)에 5년 계약을 맺으면서 챔피언 울산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전자랜드가 사전 접촉 의혹으로 이의 제기할 하지 않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나온 불손한 행동 때문에



사전 접촉 의심을 강하게 샀다. KCC와 이별한 베테랑 전태풍은 보수총액 7500만원을 받으며 서울 SK에 터를 잡았다. 1년 계약을 맺어 자존심 회복의 기회를 마련했다. 김종규를 놓친 LG는 정희재, 김동양 등을 데려와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한편, 김민구(KCC), 김명진(KT), 차민석(삼성), 성재준(오리온), 안정환(LG), 이지운(DB) 등은 타 구단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했다. 24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재협상을 벌인다.

태권도, 세계선수권 남녀 모두 종합우승...MVP 장준

남자부 금 2 · 동 2
여자부 금 2 · 은 1



왼쪽부터 장준, 조정원 총재, 제이드 존스

한국 태권도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부 동반 종합우승을 했다. 한국 태권도 대표팀은 19일 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막을 내린 2019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녀 각 8체급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모든 체급에 선수를 내보낸 한국은 남자부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점수 315로 1위에 올랐다. 러시아(금 1·은 1·동1)가 221로 2위, 중국(금1·동1)이 167로 3위에 올랐다. 영국(금1)과 아제르바이잔(금1)이 각 149, 148로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해 320으로 정상에 등극했다. 중국(금1·은2·동2)이 297로 2위, 영국(금2·동1)이 289로 3위다.

한국은 2017년 무주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남녀부 동반 우승을 차지,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남자부에서는 2000년생인 54kg급 배준서(강화군청)와 58kg급 장준, 80kg급 박우혁(이상 한국체대)이 활약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뤘다. 여자부에서는 46kg급 심재영(고양시청)이 한중 성숙린 경기운영으로 무주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대회 남녀부 최우수선수(MVP)는 장준과 여자 57kg급 금메달리스트 제이드 존스(영국)가 수상했다. 뉴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진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륵,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